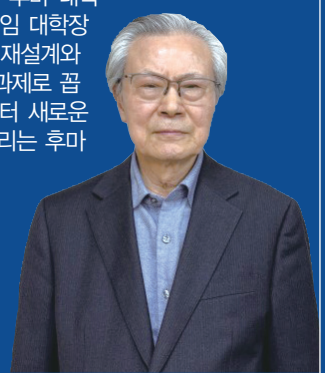
이한구 신임 후마 대학장 | 6면 인터뷰

후마니타스칼리지에 11년 만에 후마 대학장이 임명됐다. 이한구(철학) 신임 대학장은 AI 시대에 맞는 교양교육의 재설계와 후마의 정체성 재정립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후마 혁신위원회' 구성부터 새로운 교육 인증제 도입까지, 그가 그리는 후마의 미래를 들어봤다.



학사 · 석박 통합 연계과정 도입, 기대와 우려 공존 | 7면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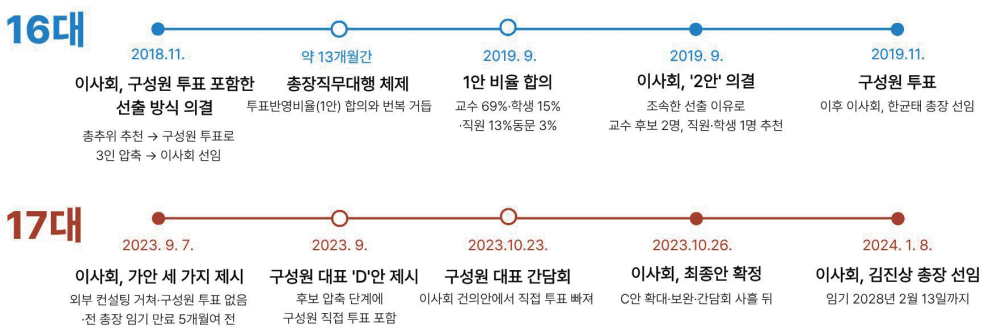
우리학교가 내년부터 학사 · 석박 통합 연계과정을 도입하면서 학위 취득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와 연구의 질 저하 우려가 교차한다. 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연구 여건과 장학 지원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대학주보

제 1769 호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16대엔 투표, 17대엔 숙의…18대 총장 선임 방식은 구성원 참여 축소 '평가' 속 제도 개선 목소리도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노조 집회에 가처분 신청한 학교… 쟁의권 제한 논란 학교 "구성원 권리 보호" vs 노조 "정당한 활동 위축"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우리학교가 전국대학노조와 산하 경희학원지부 · 산학협력단지회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우리신문은 학교와 노조 양측의 입장을 통해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살펴보고, 대학 내 노동조합 활동과 구성원의 권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학교, 구성원 권리 보호
과거 집회 사례 근거로 제시

학교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노조 활동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연구·행정과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세윤 인사처장은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존중되는 공간이지만, 그 과정에서 교원들의 교육·연구와 학생들의 학습권, 직원들의 행정업무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노조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대학의 정상적인 기능이 침해된다면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의미의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14일 우리학교가 법원에 제출한 추가 준비서면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사한 장소에서의 행위 방식과 그 영향을 살펴기 위함"이라며 과거 노조 집회로 인해 업무 및 시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를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3월 서울캠 본관·청운관과 국제캠 중앙도서관·학생회관에서 진행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통행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캠 본관에서 열린 임금·단체협약 교섭 당시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회의 참관 요구로 회의 개시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하루 앞둔 24일 밤까지 이어진 서울캠 본관 앞 천막농성 등 본관 일대 집회도 사례에 포함됐다.

본관 앞 공간을 집회 농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구성원의 통행 불편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최근 사례로 지난 9월 국제캠 중앙도서관 내 선전물 게시와 10월 1일 열린 학생회관 집회를 제시했다.

학교 측은 선전물 게시 위치와 범위 등이 중앙도서관의 관리·이용과 관련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관 집회는 당시 취업컨설팅 부스 앞에서 진행돼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

70년 만의 구성원 투표, 4년만에 폐지

16대

2018.11. 이사회, 구성원 투표 포함한 선출 방식 의결
총추위 추천 → 구성원 투표로 3인 압축 → 이사회 선임

약 13개월간 총장직무대행 체제
투표반영비율(1안) 합의와 번복 거듭

2019. 9. 1안 비율 합의
교수 69%·학생 15% ·직원 13%동문 3%

2019. 9. 이사회, '2안' 의결
조속한 선출 이유로 교수 후보 2명, 직원·학생 1명 추천

2019.11. 구성원 투표
이후 이사회, 한균태 총장 선임

17대

2023. 9. 7. 이사회, 가안 세 가지 제시
외부 컨설팅 거쳐·구성원 투표 없음 ·전 총장 임기 만료 5개월여 전

2023. 9. 구성원 대표 'D'안 제시
후보 압축 단계에 구성원 직접 투표 포함

2023.10.23. 구성원 대표 간담회
이사회 건의안에서 직접 투표 빠져

2023.10.26. 이사회, 최종안 확정
C안 확대·보완·간담회 사흘 뒤

2024. 1. 8. 이사회, 김진상 총장 선임
임기 2028년 2월 13일까지

원 직접 투표가 포함된 'D안'을 제시했지만, 한 달 뒤 10월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사회에 건의된 안에는 직접 투표가 빠져 있었다. 사흘 뒤인 26일, 이사회는 처음 내놓은 가안 가운데 C안을 확대·보완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은 ▲초빙 공모 ▲후보자 추천 ▲숙의·자문 ▲후보 선정 ▲심의·의결 ▲임용 단계로 이뤄졌다.

확정된 총장 선임제에서 구성원은 후보 추천과 숙의 단계까지만 참여할 수 있었다. 후보를 5인으로 압축하는 총장후보숙의위원회 9명 중 5명은 이사회 측 인사였다. 이후 이사회는 2024년 1월 8일 김진상 교수를 제17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16대 '첫 구성원 투표'
17대 '수동적인 위치'

16대 총장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구성원 대표들은 당시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3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

학교는 앞서 제시한 사례를 토대로 지난 9월 18일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서울캠 ▲청운관 ▲본관(대학원) ▲평화의 전당 등 3개 건물의 50m 이내 구역에서 ▲화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고성·부부젤라(응원나팔)·장송곡 등 소음을 이용한 시위 ▲건물 출입 및 이용 방해·점거 ▲시설물 훼손 등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학생회관을 금지 대상 장소에 포함하고 ▲고성·부부젤라(응원나팔)·장송곡 등 소음을 이용한 시위에 대한 요구를 ▲소음 측정치가 65dB를 초과하는 행위로 구체화 하는 방안을 추가로 요청했다.



전국대학노조 경희학원지부는 '경희대학교 사상 초유의 노동탄압'이라며 지난 14일 서울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철회, 총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사진=김민영 기자)

노조, 정당한 쟁의행위 위축 우려
근태 협조 · 대화 조건 놓고 이견

반면 노조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적법한 쟁의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 측은 지난 9월 21일 예정됐던 노동교육과 투쟁결의대회를 교내 행사인 Peace BAR Festival(PBF)과 일정이 겹치자 자진 연기했음에도 학교 측이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민휘 전국대학노조 경희학원지부 산학협력단지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부터 성실하게 대화의 문을 두드렸다"며 "쟁의권을 확보한 뒤에도 결의대회를 스스로 미뤘지만 돌아온 것은 5천만 원이 적힌 방해 금지 가처분이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학교와 노조 간 이견은 이어지고 있다.

김종민 경희학원지부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학교 측은 노조에게 산학협력단 임금교섭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총장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부장은 "노조는 임금교섭 문제가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해당 사안을 제외한 총장 면담은 무의미하단 입장을 전했다"며 "소송취하 뒤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교 측의 근태 협조 거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노조는 매 학기 초 임원·간부 회의 일정을 인사처와 산학협력단, 사이버대 측에 전달해 회의 참석을 위한 근태 협조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인사처가 지부장 선거 관련 회의에 대해 근태 협조를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김 지부장은 이를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총장 면담을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하면서도 기존에 인정해 온 노조 회의에 대한 근태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를 인사처에 확인해 본 결과, 오 처장은 "대학은 조합 간부와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횟수를 사전 협의하고, 이를 양측이 준수하며 근태협조한다"며 "이번 회의의 근태 협조 요청의 경우, 노조가 근태협조 허용한도를 소진하여 이에 대해 근태 협조 수용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내 구성원 시각 엇갈려
쟁의행위 제한, 법적 기준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학내 구성원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지난 2월 서울캠 중앙도서관에서 자격 시험을 준비했다는 재학생 A씨는 "쟁의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임을 알고 존중하지만, 며칠간 이어진 소음으로 집중력을 잃곤 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학생 B씨는 "대학본부의 법적 대응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노동권 침해가 우려돼 노조 측 주장에 공감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도 있었다. 성경헌(경제학 2020) 씨는 대자보를 통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 법적 절차로 입을 막으려 드는 것을 용인하는 세상이 더 나은 세계는 아닐 것"이라며 학교의 가처분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과 노동조합의 권리가 충돌할 때 집회·시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도 이어진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법학) 교수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형사 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범위 안의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업무 방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가 구체적으로 임박했고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HP 보안 취약점 확산…우리학교 웹사이트 보안 대응은

김수인 기자 windsnow07@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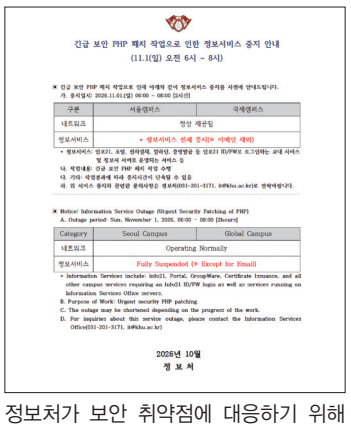
최근 PHP 보안 취약점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학교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월 21일,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로그인 없이 서버를 원격으로 장악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PHP2Shell)이 발견됐다. 웹 기술 조사기관 W3Techs에 따르면 PHP는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70%를 차지한다. 발견된 취약점은 공격자가 로그인 절차 없이도 원격으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해 서버 권한을 빼앗고, 데이터 유출이나 웹사이트 변조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하면 비전문가도 웹사이트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국내외 정부기관과 기업들은 서버 및 웹사이트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도 기업과 공공기관에 PHP 관련 긴급 권고사항을 공지했다.

우리학교 역시 학생과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와 다양한 학술연구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보처는 지난 1일 PHP 긴급 보안 패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교내 웹사이트 내 PHP 관련 해킹 의심 정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성원 정보처장은 "지난 10월 22일경 해당 사안을 인지했고, 즉시 정보처와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연락하여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PHP사태와 더불어 최근 생성형 AI기술의 발달로 인해 서버 공격 시도가 급증한 상태"라며 "외부 공격에 철저하게 대응·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PHP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버전별로 적절한 보안 패치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8.1 이하 구버전은 공식 패치 지원 여부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긴급 보안 PHP 패치 작업으로 인한 정보서비스 중지 안내
(11.1(일) 오전 6시 ~ 8시)

★ 긴급 보안 PHP 패치 작업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정보서비스 중지를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가. 중지일시: 2026.11.01(일) 00:00 ~ 08:00 [8시간]

구분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네트워크	정상 제공됨	
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전체 중지(※ 이메일 제외)	

• 정보서비스: 인포21, 포털, 웹메일, 캠퍼스 플랫폼 등 인포21 ID/PW로 로그인하는 교내 서비스 및 정보처 서버로 운영되는 서비스 등
나. 작업내용: 긴급 보안 PHP 패치 작업 수행.
다. 기타: 작업진행에 따라 중지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라. 위 서비스 중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정보처(031-201-3171, it@khu.ac.kr)로 연락바랍니다.

★ Notice! Information Service Outage (Urgent Security Patching of PHP)
A. Outage period: Sun, November 1, 2026, 00:00 ~ 08:00 [Hours]

Category	Seoul Campus	Global Campus
네트워크	Operating Normally	
정보서비스	Fully Suspended (※ Except for Email)	

• Information Services include: Info21, Portal, GroupWare, Certificate Issuance, and all other campus services requiring an Info21 ID/PW login as well as services running on Information Services Office servers.
B. Purpose of Work: Urgent security PHP patching
C. The outage may be shortened depending on the progress of the work.
D. For inquiries about this service outage, please contact the Information Services Office(031-201-3171, it@khu.ac.kr)

2026년 10월
정 보 처

정보처가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PHP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

교내 웹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지난 10월 23일 패치가 제공된 최신 환경의 PHP 사이트를 대상으로 최신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식 패치가 제공되지 않는 구버전 환경 사이트에는 취약점 공격의 핵심 통로인 세션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고 파일 업로드 용량을 제한하는 차원의 서버 긴급 임시 조치를 취했다.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정보처의 총괄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내 PHP 서버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 업체를 통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 해킹이나 웹쉘(Web shell) 설치, 데이터 변조 등의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학교는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최신 네트워크 환경(VPC) 및 PHP 최신 버전(PHP 8.5.12)으로의 전면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 전환에 따른 호환성 검증에는 약 1,9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커뮤니케이션센터는 해당 예산을 2027학년도 본예산으로 신청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내년 중 JAVA 기반 홈페이지의 경우 관리자 페이지 무단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2차 인증 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별도의 보안 조치가 적용된 클라우드 저장소에 데이터베이스 및 첨부파일을 정기적으로 백업해 유사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안 규정 및 하위 지침에 따라 침해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외부 접속을 차단하는 등 대응책도 수립했다.

한편, 외부시스템을 통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세화관 ▲제2기숙사 등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확인한 피해 상황은 없다. 세화관은 "외부업체 측에서 임시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서버 작업 기록 및 시스템 기록(로그) 점검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행복기숙사는 "정기 보안 및 서버 점검을 분기당 1회씩 시행한다"며 "유지·보수 업체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면에서 계속 ➡

당시 구성원 대표 간 합의가 끝난 뒤 9월에 제2안이 나오며, 그 사이 5개월간 구성원 간 논의는 무의미해진 것이다. 당시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제1노조) 위원장으로 총추위에 참여한 학생지원센터 한상 차장은 “5월부터 이어온 논의가 무의미해졌다”며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기간 안에 촉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구성원이 총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차장은 “구성원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총장 선임과정에 참여했기에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17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는 구성원 간 논의 과정조차 부재했다. 한 차장은 “17대 총장 선임은 논의 과정도 없이 진행됐다”며 “총장 선임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음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당시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임경열 현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도 “16대 총장 선임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마련된 구성원 참여 방식이 17대 총장 선임제에서도 이어지기를 기대했던 만큼 아쉬움이 컸다”고 밝혔다.

17대 총장선임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교수의회 내부의 의견도 엇갈렸다. 교수의회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교수들은 직접 선거를 선호했다. 그러나 김도균 당시 교수의회 의장은 시간적 여유 부재, 총장 직무대행 체제 반대, 직선제 관철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확정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선임 과정에서는 비공개 원칙이 논란이 됐다. 지난 대학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총추위원 B씨는 후보 자료조차 “2~3장 분량의 자기 추천 수준”이었다며 후보의 자질을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B 위원은 “법인은 총장 선임 절차가 약 1년간 진행됐다고 하지만 구성원이 체감하는 기간은 4개월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숙의위원 자격을 '국내외 선도 고등교육·학술기관 기관 경영 유경험자'로 정한 탓에 구성원 추천 숙의위원도 1개 단체를 제외하고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관련기사: '비공개 원칙', 구성원 참여 수준 낮춰 / 대학주보 1716호/2024.01.24.). 김종민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장은 “제 17대 총장 선출과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구성원들은 선임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남은 시간 1년 3개월
구성원의 ‘개선 논의’ 요구

이처럼 총장 선임을 위한 준비 시간은 늘 부족했다. 16대에는 합의가 늦어져 1년 넘게 총장 자리가 비었고, 17대에는 그 경험에서 나온 ‘대행만은 피하자’는 우려가 구성원 투표가 빠진 안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됐다.

18대 총장 선임까지 1년 3개월 남은 현 시점, 취재에 응한 구성원들은 지금부터 선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선임 일정에 제도 개선 논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제도 개선 논의를 거친 뒤 선임 일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현 구성원 대표들의 임기가 올해 끝나는 만큼, 내년 1월 새 대표단이 꾸려지면 총장 선출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총장 선임 과정에 구성원 투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차장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투표”라고 말했다. 다만 김 지부장은 구성원 직접 투표를, 임 위원장은 구성원 대표 선거인단 투표를 제안했다.

지난 두 차례 총장 선 과정을 평가하는 공식 논의기구를 꾸리자는 의견도 있다. 김 지부장은 “논의기구에 각급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고 법인도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한다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구성원들은 제18대 총장 선임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대학주보 DB)



① 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현장 (사진=윤혜원 기자)
② 대운동장 예상 조감도(안) (사진=시설운영팀장 제공)

대운동장 인조잔디 공사 착공 12월 준공…학생 이용은 내년 초

윤혜원 기자 yhyyhy0622@khu.ac.kr

【국제】 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가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준공은 12월 14일로 예정됐으며 일반 학생들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신문은 지난 9월 시설 이용 조건을 둘러싼 의견차로 용인시와 최종 협약 체결이 지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0월 착공, 주말 오전 외부 대관·학생 이용 제한/대학주보 1766호/2026.09.06.) 이후 지난 9월 10일 용인시와 최종 협약이 체결됐으며, 지난달 26일 공사 계약을 맺고 27일 착공했다.

공사를 마친 대운동장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기준에 맞춘 인조잔디 축구장과 축구장 둘레를 따라 트랙 2개 레인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무관리처 시설운영팀 유중근 팀장은 “통상 야외 공사에는 60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번 공사는 약 50일 목표로 일정이 촉박해 우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준공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운동장은 공사 완료 후에도 주변 정리와 안전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일반 학생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대운동장 내부 출입과 주차가 제한되지만, 주변 통행로는 이용할 수 있다. 운동장 이용이 필요한 경우 럭비장이나 공대 인조잔디구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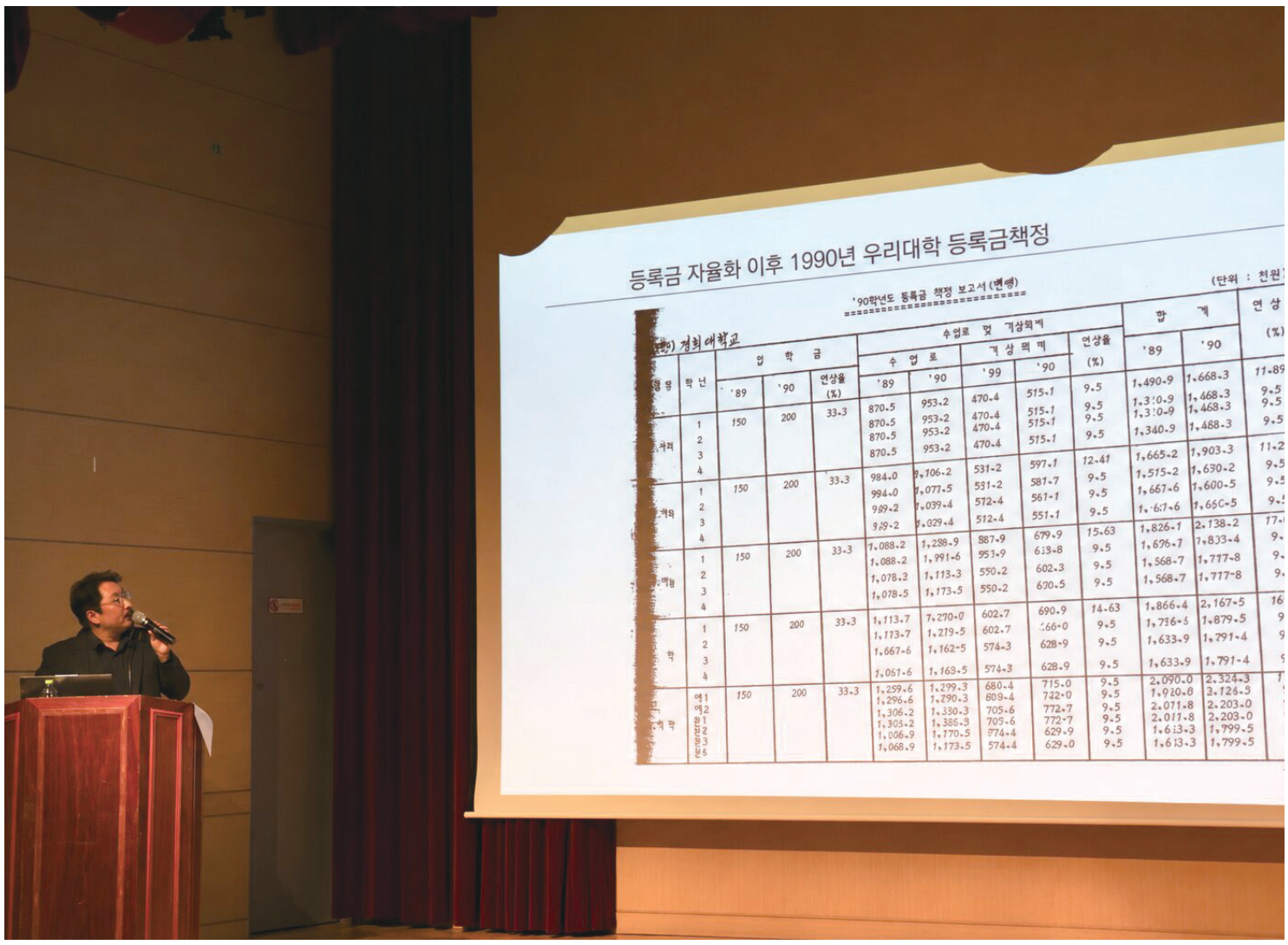
현재 축구부는 공대 인조잔디구장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일부 수업은 선승관과 공대 인조잔디구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용인시와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외부 축구 동호회의 대관 가능 시간은 휴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로 최종 결정됐다. 학교 측은 학교 주요 행사와 축구부 훈련 일정 등을 미리 전달받아 외부 대관 일정과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유 팀장은 “갑작스럽게 학교 행사가 생기는 경우 이미 예정된 대관을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팀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대운동장과 주변 공간이 운동시설뿐 아니라 공원이나 만남의 광장처럼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등록금 인상은 계속, 재정 분담 논의는 제자리
학교, 물가 연동 인상 방침… '등록금 대원칙' 합의 지연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지난 3일 열린 재정설명회에 김영진 예산팀장이 등록금 자율화 이후 등록금 인상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서현 기자)

우리학교가 2년 연속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향후에도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물가상승에 대응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4월 제기되고 9월 논의가 예고됐던 '등록금 대원칙'은 여전히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신문은 지난 6월 보도와 사설을 통해 등록금 의존 구조와 협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짚어왔다. 이에 이번 기획에서는 등록금 인상 재원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대학과 학생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논의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점검한다.

등록금 인상 기조 지속 물가상승에 따른 필요성 강조

학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등록금 인상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 대응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동결로 누적된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법정 상한 범위 내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조정처 김영진 예산팀장은 지난 3일 서울캠 오비스홀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재정설명회'에서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누적된 재정 부담과 주요 사립대학 대비 낮은 등록금 수준을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우리학교는 2012학년도 등록금을 2.5% 인하한 이후 2024학년도까지 동결을 유지하다 지난해 5.1%, 올해 2.95% 인상했다. 학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6년 추정치 기준 누적 약 30%에 달한다.

김 팀장은 "현행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올해부터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올해 1.2배로 강화된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등록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수준이라며 "계속해서 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에 관한 우리신문의 질의에도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 현행 상한제가 유지되는 한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동결 기간의 누적 물가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보다 매년 일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 팀장은 2027학년도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3~3.2%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법정 상한율에 관한 예측으로, 실제 인상률은 향후 상한률 확정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등록금 인상 재원 약 60억 원 교육환경 · 교원 채용에 투자

학교는 등록금 인상 이후 양캠 교육 환경 개선과 교원 채용 등에 재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인상 재원뿐 아니라 교비와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주요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팀은 올해 학부 등록금 2.95% 인상으로 약 6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환경 인프라 개선(35억 원) ▲신임교원 채용 및 연구역량 지원(20억 원) ▲학업역량 강화·학생사업 지원(5억 원) 등의 재원 활용 현황을 제시했다. 각 분야에는 추가 재원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캠에서는 청운관 일반강의실 27개와 계단식 강의실 8개 등 총 35개 강의실의 책상과 의자 2,082석이 정비됐다. 학생회관 2~3층의 학생자치 공간과 문과대학 일부 공간도 개선됐다. 국제캠에서는 중앙도서관 지하 1층 자료열람실과 우정원 지하 강의실, 스마트 강의실, 야외농구장 등의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됐다.

예산팀은 올해 서울캠 주요 시설 공사에 약 113억 원, 국제캠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등록금 인상분뿐 아니라 교비와 국고 등 여러 재원을 포함한 규모다. 더불어 2026학년도 전임교원 79명과 사무직 직원 17명, 기능직 직원 6명 등 총 102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퇴직자를 고려한 신규 채용 관련 투입 재원은 전임교원 약 30억 원, 직원 약 2억 원 등 총 32억 원으로 추산했다. 예산팀은 "개별 공사 금액은 입찰과 계약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더불어 "실제 지출액은 결산 이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학교는 생성형 AI 플랫폼 ChatKHU 도입과 학생 성장 플랫폼 구축, 학부연구생 제도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등록금 외 재원 확보 요구 기부금 등 재원 다각화 구상

등록금 외 재원 확보를 두고 학교와 총학생회(총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총학은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완화해 대학과 학생이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는 단기적으로 등록금 수입을 확대해 장기적인 재원 다각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신문은 서울 주요 사립대학 8곳의 2025학년도 교비회계(통합) 자금 계산서 결산 자료를 분석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등록금 의존율 산식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자금 수입 총액으로 나눠 산출했다. 분석 결과 우리학교 등록금 의존율은 60.0%로 두 번째로 높았다.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은 ▲중앙대 61.6% ▲경희대 60.0% ▲서강대 58.9% ▲한국외대 55.2% ▲한양대 52.9% ▲성균관대 43.8% ▲고려대 42.9% ▲연세대 36.2%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캠 신창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은 기부금 유치 등 대학본부 차원의 수입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캠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도 학생이 등록금 인상분을 부담하는 만큼 학교 역시 등록금 외 수입을 확대해 재정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팀장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5면에 계속 ➞

4면에서 계속 ➞

대학이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장기적으로 등록금 외 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추후 "외국인 학생 유치 등 정원 외 학위과정을 확대하고,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재원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등록금 외 수입 확대 방안으로는 기부금 모금과 공간 대여, 적립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실제 교비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기부금 수입은 ▲2024학년도 약 121억 원 ▲2025학년도 약 151억 원 ▲2026학년도 약 188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실제 기부금 결산액은 ▲2024학년도 약 116억 원 ▲2025학년도 약 111억 원으로, 모두 당초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 기부금 확대가 등록금 외 재원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실제 모금 실적도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는 단기적인 등록금 수입 확대를 장기적인 재원 다각화의 기반으로 보고 있지만, 총학은 등록금 외 수입 확충을 통한 재정 부담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등록금 대원칙' 수립 학교-총학 온도 차

지난 4월 필요성이 제기되고 9월 논의가 예고됐던 등록금 대원칙은 11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학교는 재원 배분을 사전에 고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총학은 대원칙 마련에 앞서 지속적인 재정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신문은 지난 6월 8일 보도에서 총학 출범 직후 등록금 논의가 집중돼 대학 재정 자료를 검토하고 협상 전략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짚었다. 당시 신 회장은 "총학생회 임기가 시작되는 1월에 학교와 곧바로 등록금 협상을 하다 보면 시간이나 구조상 대응력을 갖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김진상 총장은 지난 4월 학생과 교원,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등록금 관련 대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9월경 대원칙을 마련하자는 논의도 제안됐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신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학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대원칙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언급했다. 김 팀장은 "우리학교는 사업별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매년 대학의 운영 방향에 따라 예산을 배정한다"며 "미리 대원칙을 정해 수입 재원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전에 재원 배분 비율을 정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대원칙 구상을 등록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성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학의 교육·연구 경영 방향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교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은 사전에 재원 배분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총학이 강조하는 것은 재정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의 구조다. 신 회장은 "대원칙 마련에 앞서 학교와 학생이 재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의 장이 구축돼야 대원칙도 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심위 구성 개편 추진 협상 전문성 강화 모색

등심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총학은 대학 재정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

양캠 총학은 지난 6월 예고한 등록금 협상 대응 TF를 구성해 세 차례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TF에서는 차기 등록금 인상률 전망과 캠퍼스별 협상 전략, 등심위 위원 구성 개편 등을 논의했다.

국제캠 총학은 현행 학부생 2명·대학원생 2명으로 구성된 등심위 학생위원을 학부생 3명·대학원생 1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부와 대학원의 재학생 규모와 등록금 부담, 교육과정상 이해관계 차이 등을 고려해 학부생 대표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 회장은 "예산팀과 면담해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전달했다"며 한편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이나 규정 개정 일정에 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학교의 공식적인 수용 여부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TF에서는 학교 측 등심위 위원을 기획조정처장과 총무관리처장 등 재정·시설 관련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제캠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신 회장은 "기존 위원 구성의 취지를 먼저 검토해 신중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질적인 재정 논의를 위해 관련 부서 책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해당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등심위 회의 횟수나 자료 제공 시기 자체보다 학생위원들이 대학 회계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협의 정례화 미완 학생 요구 이행 여부가 과제

학교와 학생 대표 간 등록금 협의는 여러 차례 진행돼 왔으며, 실제 인상률 조정도 이뤄졌다. 총학이 추진하는 다음 변화는 이러한 협의를 등록금 책정 시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학기 중 재정운용 논의로 이어가는 것이다.

학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앞서 양캠 총학 및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면 회의 8차례가 진행됐다. 올해 1월에는 양캠 확대운영위원회 대상 재정 설명회와 후속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학교가 당초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은 3.1%였으나, 학생 대표들의 3% 미만 조정 요구 등을 거쳐 최종 2.95%로 결정됐다.

신 회장은 앞서 구성한 공동 TF의 협상 자료와 논의 내용을 차기 총학생회에 인수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회 교체에 따른 협상 준비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6월 보도에서 총학이 7월 학무부총장 협의체, 8월 재정운용 설명회, 10월 추가경정예산 반영 점검, 11월 집행 결과 확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등록금 협상 이후에도 학생 요구가 실제 예산과 사업에 반영되는지 살펴보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8월 13일 열린 재정 분야 학무부총장 협의체에서는 학생 요구사항 16건이 전달됐다. 이 가운데 12건은 학교 측이 수용했으며 ▲오비스홀 강의실 책상·의자 교체 ▲약학대학 진입 계단 구조 개선 ▲정경대학 1층 휴게실 및 열람실 개선 예산 추가 경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추진 등 4건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 운용 점검 일정도 당초 총학이 제시한 계획과 차이가 있었다. 7월 중 추진한다고 밝힌 학무부총장 협의회는 8월에 개최됐고, 8월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힌 재정운용설명회는 11월 3일 열렸다. 학교는 시설 개선과 교직원 신규 채용 등 주요 투자 현황을 공개했지만, 학생 요구안 별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협의 절차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후마의 정체성 다시 세우는 것이 첫 과제” 11년 만에 선임된 이한구 신임 대학장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한구 대학장은 “청운관 앞 청운종각에 새겨진 경희의 8개 지침 중 첫 번째인 삼정행(三正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정행 인증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권도연 기자)

인터뷰–신임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미래문명원 이한구(철학) 석좌교수가 지난달 8일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대학장에 취임했다. 2015년 도정일 초대 대학장 사임 이후 11년 만의 선임이다. 우리신문은 신임 대학장을 만나 앞으로의 후마 운영 방향에 대해 물었다.

Q. 11년 만에 후마 대학장직에 임명됐다. 소감과 대학장의 역할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 대학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AI 시대의 교양교육을 재설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문제를 정의해 해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핵심 역량이 돼야 한다. 대학장직이 다시 필요해진 것은 후마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누적돼 있고, 이를 풀기 위한 양 캠퍼스 후마의 협력과 유기적 통합이 더욱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Q. 그간 미래문명원에서 지켜본 후마의 성과와 과제는?

후마는 설립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찬사를 받았고, 많은 대학이 벤치마킹할 만큼 성과를 냈다. 그러나 AI 혁명으로 시대 상황이 바뀌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중흥이 필요한 시점이다.

Q. 대학주보의 창간 71주년 특별기획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에서 제기한 과제들은 어떻게 봤나?

9회에 걸친 기사를 모두 읽었고 많은 부분 공감한다. 간단히 해결될 문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도 있다. 그리고 후마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본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도 있다. 향후 후마 교수뿐 아니라 교내 다른 단과대, 그리고 외부 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교수까지 포함된 ‘후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학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려 한다.

Q. 철학자로서 생각하는 교양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교양은 자유학예(Liberal arts)나 형성(Bildung)의 의미로,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는 전 과정을 가리킨다. 근대 연구 중심 대학의 모델인 베를린 대학을 설계한 빌헬름 폰 훔볼트는 직업 훈련이 아닌 자유로운 인격 형성을 대학의 이념으로 삼았고, 이것이 오늘날 교양교육 이념의 원형이 됐다. 교양과 전공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상식과 전문, 기초와 심화 두 가지다. 전자에서 교양은 본 게임 전 몸풀기에 불과하지만, 후자에서는 학문의 핵심기초역량을 기르는 영역이 된다. 후마는 설립 때부터 후자를 추구해 왔고, AI 시대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Q. AI 시대 교양교육이 지켜야 할 가치와 바꿔야 할 부분은?

AI는 답을 빠르게 주지만, 좋은 질문을 던지고 답의 진리 여부를 판단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양교육의 핵심 가치다. 정보가 거의 무한히 공급되는 환경에서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버릴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가려내는 능력이 핵심이 된다. 전문 기술의 수명은 짧아지지만 논증하고 학습하는 방법은 어떤 변화에도 적용되는 기초역량이다. 여기에 AI 문해력, AI 윤리 같은 새로운 소양을 더해야 한다. AI를 도구로 자유자재로 쓰되, 사고의 과정만큼은 외주를 줘서는 안 된다.

Q. 서울과 국제 양캠에서 같은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후마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간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양캠 논의가 엇갈리기도 했다. 대학장이 생각하는 ‘하나의 후마’는 어떤 모습인가?

후마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단순히 전공교육에 진입하기 전 예비교육의 개념이 아닌, 누구나 거쳐야 하는 핵심기초역량 교육이다.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지나치게 분화돼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양캠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하나의 후마’ 이념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Q. 후마 교육에 맞는 평가방식은?

무조건 좋은 평가방식은 없다. 상대평가는 성취 목표를 달성한 학생에게도 비율에 얽매여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절대평가는 학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토론과 성찰을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 평가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평가로 가기 위해선 학점 인플레나 낮은 학습 열기를 방지할 정교한 평가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후마 교수님들과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해결책을 곧 마련하겠다.

Q. 대학장 업무를 시작하며 우선 추진하려는 과제는?

후마 정체성 재정립이다. 경희의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후마라면 나름의 교육철학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삼정행(三正行) 인증제’를 구상하고 있다. 청운관 앞 청운종각에 새겨진 경희의 8개 지침 중 첫 번째가 바른 앎(正知), 바른 판단(正判), 바른 실천(正行)의 삼정행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세 가지 인증을 생각하고 있다. 핵심기초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는 리더십 인증, AI 윤리를 지키며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학생에게는 AI 인증, 이중언어 능력과 인류공동선의 실천 능력을 기른 학생에게는 세계시민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삼정행은 ‘인간다움의 완성’이라는 후마의 이념과 부합하고, 우리 시대가 경희에 요구하는 인간다움이 각 분야의 리더, AI 전문가, 세계시민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물론 공론화를 거쳐 합의를 이뤄야 구체화될 것이다.

Q.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학술원은 어떤 곳인가?

분야별 한두 명의 원로 학자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으로, 우리나라 학계를 대표해 해외 학술원과 교류하며 인류의 난제를 함께 연구한다. 최근 높아진 ‘K-학술’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 향후 학술원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원로 학자들을 후마 특강과 세미나에 초청할 계획이다.

Q. 학생 의견 수렴 방안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은 단순 지식 전달 대상이 아닌 진리를 함께 탐구하는 학문 공동체의 동료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용하겠다. 다만 학문공동체가 발전하려면 공동의 목표와 전통, 앞선 경험자의 지혜도 필요한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들의 성취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하겠다. 학생들에게는 눈을 크게 뜨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빠른 추격자’로서 근대 사회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앞선 선도자’로서 인류 문명을 이끌며 우리의 전통과 유산도 챙겨야 한다. 경희의 젊은이들이 이 사명을 잊지 않길 바란다.

학사 · 석박 통합 연계과정 도입, 6년 6개월 내 박사도 가능
기대와 우려 공존…연구 · 장학 등 지원제도 확충도 관건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우리학교가 내년부터 학사 · 석박 통합 연계과정을 도입한다. 지난 9월 11일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사부터 박사까지 이어지는 통합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학위 취득에 따르는 시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계나 산업 현장에 더 일찍 진출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은 학부 시절부터 대학원 수업을 경험하고, 졸업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지 판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학위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지, 학생이 충분히 신중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우리신문은 새로 도입되는 학사 · 석박 통합 연계과정에 대한 현직 대학원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연계과정별 수업연한 단축 기간

구분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석박 통합 연계 과정
조기졸업형	학부 0.5년 + 대학원 0.5년 단축 **총 1년 단축**	학부 0.5년 + 대학원 1년 단축 **총 1년 단축**
정규졸업형	대학원 0.5년 단축	대학원 1년 단축

※ 학과별 선발 예정이며, 연계 유형 및 진학 과정에 따라 단축 기간이 다름.
※핵심인재양성 분야 및 우리학교의 전략적 성장분야에 적용되는 Fast Track은 대학원 과정에서 1개 학기를 추가로 단축할 수있음.

대학원 진학 문턱 낮추고 연구교육 연속성 높인다

우리학교 대학원은 2027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기존의 예약입학전형과 학·석사 연계전형을 폐지하고 학·석사 연계과정과 학사·석박 통합 연계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

학사·석박 통합 연계과정은 학부 졸업 후 석사와 박사 과정을 각각 거치는 대신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진학하는 제도다. 별도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바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한다. 기존 석·박사 통합과정은 수업연한이 4년이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학사·석박 통합 연계과정을 선택하면 이를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해당 연계과정은 대학원 전 학과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학사·석박 통합 연계과정의 정규졸업형은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을 합쳐 총 7년, 조기졸업형은 학부 3년 6개월과 대학원 3년을 합쳐 총 6년 6개월이 소요된다.

학·석사 연계과정도 기존 제도를 개편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학부 조기졸업과 석사과정 진학을 연계했지만, 개편 후에는 정규졸업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졸업형은 학부 4년과 석사과정 1년 6개월을 합쳐 총 5년 6개월, 조기졸업형은 학부 3년 6개월과 석사과정 1년 6개월을 합쳐 총 5년이 걸린다.

신청 기회와 지원 자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석사 연계전형은 3학년 1학기, 예약입학전형은 4학년 1학기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두 연계과정 모두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전공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본전공이나 다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 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부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평점 평균은 정규졸업형 3.0 이상, 조기졸업형 3.2 이상이다.

연계과정 승인 학생에게는 학부 수강 최대 학점보다 3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기회도 주어진다. 학부 재학 중 대학원 수업을 미리 경험하고 진학 여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한 학기 전 별도의 입학 전형을 거쳐야 한다. 학사지원팀 측은 "연계과정 승인 학생의 입학 전형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학사·석박 통합 연계과정의 도입으로 대학원 진학의 문턱이 낮아질 것을 기대했다. 박규창(반도체물리학) 교수는 "학생들이 학위 취득에 걸리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주저하는 게 아쉬웠다"며 통합 연계과정 도입으로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이 박사과정까지 진학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연계해 연구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민철(화학) 교수는 "연구에 관심과 역량이 있는 학생이 학부 후반부터 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경험하면 연구훈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단순히 졸업 시점을 앞당기는 것보다 교육과 연구를 연속적으로 설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컴퓨터공학) 교수 역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연구 문제에 적용하고, 연구 과정에서 부족한 지식을 다시 심화 학습으로 보완하는 경험을 일찍부터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위 질 저하와 섣부른 진로 결정 우려

하지만 대학원 수업연한 단축이 충분한 연구 역량을 쌓는 데 제약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연구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한 수련 기간이 필요하지만, 정해진 졸업 연한에 맞추다 보면 연구의 깊이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성민(신소재공학) 교수는 "연구 역량을 갖추려면 일정한 수련 기간과 그에 상응하는 실험 결과가 필요하다"며 "실험이 항상 계획한 기간 안에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에, 조기졸업에 집중하면 충분한 연구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 역시 "조기 학위 취득이나 단기간의 논문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학생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기보다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 기간 단축이 부실한 학위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교수는 대학원 중간 과정에 한두 차례 연구 역량을 평가하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기존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을 지도할 때도 주저자 논문 실적을 조기졸업의 조건으로 두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원래 수학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며 "통합 연계과정 또한 논문이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최소 졸업 요건을 명문화해, 조기졸업 여부를 연구실이나 학과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만으로 진학 늘까 연구 · 장학 여건 뒷받침돼야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도 뒷받침돼야 한다. 윤 교수는 "학부 연구생을 하겠다고 와도 앉을 자리가 없는 연구실이 수두룩하다"며 "새로운 진학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도 과제로 꼽힌다. 박 교수는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등록금 부담"이라며 "전액 장학 등의 지원이 확실히 보장돼야 학생이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진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학생 대상 재정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김 교수는 "등록금과 생활비성 지원의 범위, 지원 기간, 유지 조건 등을 학생이 미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비 상황이 변하더라도 교육과 연구에 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학 차원의 보완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교수의 연구비로 지원을 받는 것과 장학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에서 학생이 느낄 안정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계과정에 관한 학과별 세부 사항은 11월 중 단과대별 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학기 선발 일정은 오는 12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대학주보
유튜브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구독하기!
유튜브에 올라오는 학내외 뉴스와 다양한 컨텐츠 확인하기!
@khunews_jubo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대학주보, 제보는 khunews@khu.ac.kr

자율전공학부 전공 탐색 설명회, 'Do Dream'성료

조여경 기자 ykyungjo@khu.ac.kr

【서울】 2026년 2학기 자율전공학부(자전) 전공 탐색 설명회 DO DREAM이 지난 6일 청운관 지하 1층 KHU Creative Camp(KCC)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총 13개 학과가 참여했다. 설명회는 ▲전공 탐색 상담 ▲미니렉처 및 졸업생 특강 ▲학사 안내 및 상담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자전 이진섭 행정실장은 "자전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들을 직접 탐색하고 교수진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설명회를 통해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의 전공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전 이정희(문학) 학부장은 "지난 학기 전공 탐색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에 대해 폭넓게 알아볼 수 있었다"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수진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관심이 있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있게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전공 교수와 직접 상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학과 소개뿐 아니라 전공 선택자들의 현장 경험, 학회 등 학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었다. 지리학과 부스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지리학과 정아라(지형학) 교수는 "AI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폭넓은 경험으로 이어지는지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음에 둔 학과가 있음에도 다른 학과까지 폭넓게 알아본 학생도 있었다. 어별(자율전공학 2026) 씨는 "물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본 전공 외에 다전공 관련해서 타 학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참여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응용영어통번역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전공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도 전공 탐색 설명회에 참여했다. 경희고등학교 2학년 신해온 씨는 "평소 약사 또는 신약 개발 관련해서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경희대학교 약과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약과학과 미니렉쳐를 들어보니 요즘은 신약 개발이 대세인 것 같아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이과대학 소속 학과 부스와 약과학과 부스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렸다. 이러한 쏠림 현상에 대해 이 학부장은 "학생 수가 특정 학과에 쏠리더라도 학생들의 선택권과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자율전공학부의 의의"라며 "전공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돕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상위 2% 연구자' 국내 학부생 최초 선정

김효경 기자 Rlagyrud@khu.ac.kr



오 씨는 "단순 질환 유병률 파악 뿐만 아니라, 질환을 겪은 이후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둔 데이터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며 '코로나 이후 발생 질환', '세계 질병 부담 연구' 등을 진행했다. (사진= 오지연 제공)

【서울】 우리학교 오지연(의학 2021) 씨가 국내 학부생 최초로 '세계 상위 2% 연구자(World's Top 2% Scientists)'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 씨는 경희디지털헬스센터 소속의 학부 연구원으로서, 연동건(의학) 교수의 지도 아래 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해왔다.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인 《Nature Medicine》, 《Nature Mental Health》, 《Lancet Respiratory Medicine》 등 국제 학술지에서 주저자로서 '코로나 이후 발생 질환', '세계 질병 부담 연구' 등의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세계 상위 2% 연구자'는 매년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 기업 엘스비어(Elsevier)와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전 세계 연구자의 연구 영향력을 분석해 발표하는 명단이다. 명단은 연구자의 전체 연구 경력을 평가하는 생애 기준(career-long)과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최근 1년 기준(Single-layer)으로 구분되며, ▲총 인용 수 ▲표준화된 인용지수(h-index) ▲공저자 보정 지수(hm-index) 등 총 6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다.

오 씨는 1년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최근 1년 기준 명단에 선정됐다. 전 세계 순위 735,169등, 하위 분야 일반 내과 부문 8,053등에 올랐다. 오 씨의 H-index는 9점으로 학계의 평균 박사과정생과 비교해도 맞먹을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오 씨는 "단순히 질병의 유병률을 파악하는데 그치지않고, 질환 이후의 사람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수치화하는 '세계 질병 부담 연구'에서 성과를 낸 점이 이번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생으로서 학업과 병원 실습, 연구를 병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며 "특히 논문 게재는 길게는 2년이란 시간이 걸리기도 하여, 그 과정에서 학부생으로서 학업을 병행하는 데에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씨는 "대학원생 석사 선배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 덕에 병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에 대해 오 씨는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 정말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오 씨는 "임상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을 연구로 해결하고, 다시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하는 의사'로 성장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2026학년도 겨울학기

경희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1. 현장실습학기제 진행절차

실습기관/학교 운영계획서 제출 운영계획 협의·확정 → 학교/학생 학생모집 학생 지원서 접수 → 실습기관 선발(면접) 및 결과발표 → 학교 학과: 학점심사 수강학점 등록 → 학교/학생 사전교육 수강 학점 확인 → 실습기관/학생/학교 3자협약 / 보험가입 (학교:상해/기관:산재) → 실습기관/학생/학교 기관별 현장실습 진행 (수행 점검 및 관리) → 실습기관/학생 출석부 및 평가표 제출 학생 결과보고서 제출 → 학생 학점인정신청 → 학교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인정

※ 모든 절차는 경희대학교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를 통해 진행

2. 실습 기간 : 2026.12.22 (화) ~ 2027.02.28 (일)

3. 학생 참여 기준

가.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다만,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가능
나.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다. 졸업유예자 참여불가
라.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 가능
마.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가능

4. 신청 및 선발 일정

구분	기관신청	학생신청	기관선발	학과심사
1차	2026.10.12.(월) ~ 2026.10.23.(금)	2026.10.29.(목) ~ 2026.11.04.(수)	2026.11.06.(금) ~ 2026.11.13.(금)	2026.12.08.(화) ~ 2026.12.09.(수)
2차	2026.11.02.(월) ~ 2026.11.13.(금)	2026.11.20.(금) ~ 2026.11.26.(목)	2026.11.30.(월) ~ 2026.12.04.(금)	

학식 적자 보전 약속했지만… 학교, 정산 방식 변경 제안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생협이 운영하는 국제캠 학생회관 식당의 적자 보전 방식에 대해, 학교 측이 3년간의 손익 합산 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사진=대학주보 DB)

【국제】 생협이 운영하는 국제캠 학생회관 식당의 적자 보전 방식에 대해, 학교 측이 3년간의 손익 합산 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지난달 21일 '2026학년도 학생회관 식당 운영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달된 것으로 애초 합의는 분기별 정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협은 지난해부터 국제캠 학생회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약 5,9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국제캠은 수익성이 낮은 식당 한 곳만 운영해 이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렵다. 반면 서울캠 생협은 식당보다 수익성이 높은 편의점,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기에 적자를 메울 수 있었다.

이에 학교와 국제캠 생협은 식당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맺고, 적자가 발생하면 연간 당기순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생협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보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발생한 적자에 대한 보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현재 적자는 서울캠 생협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는 높은 원가율과 개점 초기 비용의 영향이 컸다. 국제캠 식당은 자율배식으로 1인당 제공량이 많아 원가율이 서울캠 청운관 식당보다 8.3%p 높았다. 개점 첫해 식판, 뚝배기 등 식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비용도 적자에 반영됐다.

학교는 정확한 손실액과 보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교내 회계 담당 교직원을 검토위원으로 위촉했다. 김동주 총무팀장은 "회계 장부에서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생협 측에서 주장한 적자 금액의 대부분이 납득 가능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해 사용하는 식기를 한 해 소모품비로 처리한 점과 출장비 등 일부 항목의 기준이 학교와 다른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가 3년간의 손익을 합산해 정산하자고 제안한 데는 올해 실적 상승이 주요했다. 생협은 올해 약 4,400만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계약 첫해 적자를 이후 수익으로 메워 계약 갱신 시점인 내년 말에는 3년간의 누적 손익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생협 측은 보전 방식 변경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생협 고인환 이사장은 "국제캠 식당 운영을 맡을 당시에도 수익성 문제로 이사회 내 반대가 있었다"라며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마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사회를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생협은 11월 중 이사회를 열고 해당 방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생협 김민화 사무국장은 "부속합의서의 운영보조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안도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열린다.

축구부 후반기 막판 3연패…U-리그 왕중왕전 진출 실패

김민지 기자 kmjzhongwen@khu.ac.kr



축구부가 한양대전에서 패배하며 U-리그 왕중왕전 진출에 실패했다. (사진=차 선수 제공)

【국제】 축구부가 지난달 29일 한양대학교 ERICA 대운동장에서 열린 '2026 KUSF 대학축구 U-리그' 한양대전에서 1-2로 패했다. 이로써 축구부는 U-리그 제 3권역에서 4승 2무 4패로 승점 14점을 기록하며 최종 4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왕중왕전 진출권이 주어지는 3위 이내에 들지 못한 결과다.

축구부는 U리그 마지막 3경기에서 연달아 패하며 순위 경쟁에서 밀려났다. 지난달 2일 명지대전에서 1-2로 패한 데 이어 9일 아주대전에서도 1-3으로 졌다.

마지막 한양대전에서는 후반 33분 선제 실점한 뒤 후반 39분 정주형(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후반 44분 결승골을 허용하며 3연패로 시즌을 마쳤다.

축구부는 지난 2월 '제62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과 지난달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각각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U리그에서는 시즌 막판 연패를 끊지 못하며 왕중왕전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주장 차승재(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싶었는데 마지막 3경기가 아쉽고 생각이 많이 난다"며 "축구부에 있으면서 왕중왕전을 나간 적이 없어 이번 기회에는 꼭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민서(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 역시 "전반기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왕중왕전 진출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경기력은 좋았어도 결과적으로 진 경기들이 많은 것 같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광진 감독은 선수단의 부족한 인원과 체력 부담을 시즌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감독은 "전국체전 결승전을 치른 뒤 선수들의 체력 부담과 부상 등이 겹치면서 한양대전 당시 13명의 선수로 경기에 나서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감독은 "시즌 초반 상대팀에 비해 경기력이 부족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향상됐다"며 "우리 학교 특유의 조직력과 팀워크, 패싱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이 좋아졌음에도 이를 승리로 연결하지 못한 경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을 돌아보며 차 선수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단의 태도가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감독 역시 "적은 인원으로 경기를 치렀음에도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다음 시즌 보완할 과제로 차 선수는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간 원활한 소통을, 박 선수는 기복 없는 경기력 유지를 꼽았다. 김 감독은 "선수단 규모가 줄면서 체력 부담과 부상 위험이 커지고 있어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며 "전술적 완성도를 높여 다음 시즌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인생의 험한 항로를 헤치고 평화로운 미래 세계로 나아가자



① 학생회관과 크라운관 전경 및 공사 장면 ② 학생회관 출입구 상단 동판에 새겨진 경구 탁본(1줄로 된 내용을 지면상 2줄로 실음)



김희찬(경희기록관)

경희의 유산 ㉒
『학생회관/크라운관』

'경희의 유산' 2차 연재를 시작하며–경희기록관은 2026년 가을 학기부터 1년간 '경희의 유산' 2차 연재를 이어간다. 이번 연재에서는 캠퍼스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 장소를 중심으로, 경희인의 삶과 추억,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을 소개한다.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교시탑을 지나 간호-이과대학으로 올라가면 우측 정면에 매우 독특한 외관의 학생회관과 왕관 형태의 크라운관을 만날 수 있다. 두 건물은 외형상 독립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돛단배(대형 범선)와 같은 하나의 건물로 설계됐다는 점이 독특하다. 즉, 시각적으로는 2개의 건물이지만, 공간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인 셈이다. 이 둘은 1968년 7월부터 1974년 5월 18일까지 대략 6년여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성됐다.

우리 대학은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 그런 만큼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학생 자치활동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학생회관의 건립은 매우 뜻깊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학생회관은 10층 높이의 돛과 같은 형태로, 1968년 7월 착공해 1971년 5월 18일 완공됐다. 학생회관이 개관하자 당시 학생들은 자기들만의 자치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대학 생활을 캠퍼스에서 보내자는 자발적인 학생운동이 여기저기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대학 차원에서도 이를 확대해 '학원생활화운동'으로 전개·발전시켜 나아갔다. '학원생활화운동'에서는 교수와의 면담, 클럽활동 참여, 도서관 이용, 스포츠 생활화, 각종 세미나 참석, 학생회관 이용 등이 적극 장려됐다.

학생회관 내부에는 학생들을 위한 백화점 시설, 학생복지시설, 오락시설, 학생자치회 사무실, 학생자치활동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건물 출입구 상단에는 "의지는 역경을 뚫고 협동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경구가 동판에 새겨져 있어 이곳을 드나드는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 동판은 경희인 모두가 경희정신에 입각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인 인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이곳에 부착해 놓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회관과 연결된 크라운관은 하늘을 나는 우주선 모양에 위쪽 끝을 왕관 모양으로 만든 형태이다. 학생회관이 완공되고 3년 후인 1974년 개교 25주년이 되는 5월 18일 완공됐다.

특히 개관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것은 개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경희 칸타타' 공연이 이곳에서 개최됐다는 사실이다. '경희 칸타타'는 경희 사반세기를 축하하는 곡이기 때문에 가사에는 단순한 시적 표현보다는 대학을 설립하고 역사를 창조한 경희의 의지와 정신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경희의 얼이 담긴 대서사시(大敍事詩)가 완성된 것이다.

'경희 칸타타' 중 제2부 선인송(仙人頌)에 나오는 '목련화'는 이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음대 합창단에 의해 불린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크라운관은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예술 공연장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평화의 전당이 개관하기 전까지 교내외 각종 회의,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중강당의 역할을 오랫동안 담당해 왔다.

이러한 학생회관과 크라운관의 형태적 특징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개의 건물이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건물로 표현되는, 즉 외형상 초대형 돛단배(대형 범선)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듯한 동적인 느낌도 동시에 주고 있다.

학생회관을 돛 모양으로 설계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꿈과 용기를 갖고 인생의 험한 항로를 힘차게 항해해 나가자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크라운관을 왕관 형태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왕관처럼 고귀한 정신과 이상을 품고 평화로운 미래 세계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월이 흘러 비록 건물은 낡고 기능도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이 건물이 갖는 정신과 이상만큼은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길 기원해 본다.

사설

취재 거부하는 대학, 소통은 어디에

최근 우리신문 기자가 '서울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와 관련해 총무관리처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총무팀은 업무상 사정으로 당분간 인터뷰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총무팀장에게 직접 거절 사유를 문의하자, 돌아오는 답변은 부서 인력이 부족하고, 본인은 업무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어 인터뷰에 응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총무관리처장에게도 상황을 전달해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두 차례 총무관리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으나 두 번 다 총무관리팀장 및 처장을 만날 수 없었다. 비슷한 기간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취재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다전공 의무이수제와 관련해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및 전자정보대학 행정실에 연락했으나,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취재 협조 안 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행정실을 통한 취재가 어렵다고 판단해 각 단과대학장에게 직접 취재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다음날 행정실로부터 다시 한번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학사지원팀은 대학주보 취재에 대면·유선 응답은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으며 서면으로만 응답하고 있다고 못 박기도 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은 대학주보 기자들이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대학주보의 취재 요청에 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님은 알고 있다. 업무상 사정으로 인터뷰가 어렵거나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취재 요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통 창구를 제한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기자는 사안의 실체를 확인하고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단순히 대학주보의 취재 활동이 위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학주보를 통해 대학의 주요 사안을 접하는 구성원들의 알 권리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러 부서의 취재 대응은 결국 대학주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표현일 것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보도 방향에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하지만 보도에 대한 불만이 취재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다른 언론과 달리 취재 범위를 우리학교로 한정하고 있는 대학주보는 대학과 대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주요 사안을 취재하고 구성원에게 전달하며, 대학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언론이다. 그 어떤 곳보다 활발한 소통과 구성원의 포용이 필요한 집단이다. 부서의 취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단순히 대학주보에 대한 불신으로만 해석할 순 없다. 총무관리처와 정보처 등 일부 부서는 우리 신문에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부서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구성원과의 소통을 제한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대학 차원에서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 향후 중장기 거버넌스 계획에 부합하는 인력 계획이 필요하다.

동시에 각 부서는 대학주보의 취재를 단순한 업무 부담이 아닌 대학 구성원과 소통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 대학주보가 대학 발전의 한 주체로서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열린 태도와 포용을 기대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18대 총장 선임, 논의는 지금부터

시간과 관심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제18대 총장 선임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기획을 준비하며 지난 두 차례의 총장 선임 과정을 살펴봤다. 16대에는 처음으로 구성원 투표가 도입됐지만, 17대에서는 투표가 사라졌다. 4년 만에 방식이 크게 바뀐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16대에는 투표 반영 비율을 두고 합의와 번복이 이어지면서 총장직무대행 체제가 13개월간 계속됐다. 17대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를 피하려다 구성원 대표 간담회 사흘 만에 구성원 투표가 빠진 제도가 확정됐다. 당시 교수의회 의장도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하며 느낀 것은 총장 선임의 방식만큼이나, 그 방식을 정할 시간이 충분했느냐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난 두 번의 선임제 모두 충분한 논의 없이 일정에 맞춰 급하게 제도를 정했다. 동일한 패턴이 두 번 반복됐지만, 이사회는 지난 선임 과정에 대한 평가도, 18대 총장 선임 방식에 대한 계획도 밝힌 적이 없다.

학생의 관심도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16대 구성원 투표 유권자 3만 6,945명 가운데 학생은 3만 2,059명으로 90% 가까이 차지했다. 그럼에도 16대 구성원 투표에서 학생 투표율은 39.0%로 교원(79.3%)의 절반에 그쳤다. 17대 때도 학생 대표가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장 선임은 교수나 법인만의 일이 아니다. 학생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학생의 권리는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

18대 총장 선임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법인과 대학, 구성원 대표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논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충분한 시간과 구성원의 관심이 함께할 때, 다음 총장 선임은 지난 두 번의 과정과 달라질 수 있다.



만평 시간에 쫓긴 선임제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태영특수프린테크

세시봉

불안의 끝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밤 10시가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핸드폰이 울린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엄마다. 홀로 상경한 딸이 걱정되는 엄마는 지금 어디쯤인지,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늘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처음에는 매일 걸려 오는 전화가 싫었다. 엄마의 걱정이 유난스럽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걸려 오는 전화를 마냥 귀찮게 여길 수 없게 됐다.

최근 잇따른 여성 살해 사건을 보면서다. 딸이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는 엄마의 불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지난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3시간 20분 동안 514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다뤘다.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과거 연인이었던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피해를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한 시간 전에도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관계성 범죄' 희생자라는 사실이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만 법도, 경찰의 조치도 피해자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성들의 불안은 막연하거나 과장된 감정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2025년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7명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최소 389명이다.

교제 폭력은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되고, 끝난 뒤에도 위협으로 남는다. 이별을 통보하거나 연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시작되거나 심해지기도 한다.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되는 신고에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제도 자체로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뒤에야 고통이 끝나는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엄마에게 걸려 오는 전화가 더는 딸의 무사함을 확인하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으면 한다.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인사로 남기를 바란다. 여성들이 매일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이 끝나길 바란다.



김 씨는 "의료 데이터에는 숫자뿐 아니라 CT나 엑스레이 같은 이미지 데이터도 많다"며 "요즘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신정빈 기자)

데이터에서 생명으로
숫자 너머의 질문을 찾는 시간

신정빈 기자 wjdqls2002@khu.ac.kr

공부하는 사람들 ⑧
정밀의료학 전공

학부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 앞에 선다. 이중 대학원 진학은 '연구자의 삶'을 택하는 것이다. 이들이 한 명의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앎'은 개인의 성취인 동시에 사회 공공재가 된다. 이번 학기 대학주보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여덟 번째 주인공은 의료 빅데이터로 전 세계의 질병과 죽음의 흐름을 연구하는 정밀의료학과 김소은(석박통합 6기) 씨다.

끝을 보는 성격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다

김소은 씨는 한번 무언가에 꽂히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다. 어릴 적부터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만류해도 끝내 해내곤 했다. 대학원 진학도 그렇게 마음먹은 일 중 하나였다.

어릴 적 막연히 의사를 멋있다고 여겼던 김 씨는 타 대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를 전공하며 생명과학 분야와는 멀어졌다. 그러던 중 당시 학과장이 의료 데이터를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두 분야를 접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료 데이터는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과 전공 지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였다.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밀접해 접근이 쉽지 않고, 연구자 수도 적은 분야다. 김 씨에게는 낯선 영역을 탐구한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김 씨는 "아직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새로운 걸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학과장의 소개로 학부 3학년 때 경희디지털헬스센터에서 학부연구생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처음 구상한 분석 방법을 선행 연구에 맞춰 수정해야 할 때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일이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다고 느꼈다.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이어가겠다고 마음먹은 계기였다. 김 씨는 "연구직으로 진로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연구 자체가 재미있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답을 만들어가는 대학원에서의 공부

연구를 시작하며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학부 시절에는 교과서에 정리된 지식과 분석 방법론을 배웠다면, 대학원에서는 실제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 분석 방법부터 스스로 찾아야 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의문을 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왜 이렇게 될까'를 생각해야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차이를 "글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학부 연구생 시절 첫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망 통계를 활용한 연구였다. 질병별 사망 추세를 분석하고 2050년까지 사망 규모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는 연구였다. 처음이었기에 선행 연구를 찾고 분석 방법을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김 씨는 관련 논문과 자료를 찾아가며 자신만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는 "새롭게 내 것을 만들어간다는 게 재미있었다"며 "당시 익힌 것들이 지금까지 새로운 연구를 하는 데 좋은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낯선 의학 지식은 김 씨가 넘어야 할 과제였다. 연구 초반 제2형 당뇨병 관련 선행 연구를 읽을 때는 'T2DM'이라는 약어가 반복해서 등장해 당황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게 도대체 뭐길래 계속 나오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제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Mellitus)을 의학 용어로 짧게 줄인 말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리며 웃음을 띠었다.

부족한 의학 지식은 동료들과 역할을 나누며 채워갔다. 김 씨가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링을 맡으면 의학을 공부하는 동료들은 분석 결과가 인체의 작동 원리, 즉 '기전'에 부합하는지 함께 검토한다. 데이터상 연관성이 나타나더라도 사람의 몸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서로 다른 전공의 연구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즐겁다"며 "혼자였으면 연구를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새롭게 찾아낸 결과가 의학적 기전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 씨는 "혹시 저희의 해석이 오해나 잘못된 정보를 낳지는 않을지 항상 고민한다"며 "의학적·임상적으로 타당한지 수없이 검증하고, 확신이 들 때 결과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데이터로 세상을 보는 법 원인을 좇는 질문 필요

첫 WHO 연구에서 김 씨는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사망 원인에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대사질환이나 자살로 인한 사망이 두드러진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영양 부족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많았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WHO 통계는 각국이 보고한 사망 기록을 모은 자료이기 때문에, 사망 보고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 죽음은 통계에서 반영되지 않기 쉽다. 김 씨는 "보고되지 않았을 뿐,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숨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질병과 사망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 204개국에서 380여 개 질병에 관한 사망 현황을 담은 '세계질병부담(GBD)' 데이터가 주 연구 자료다. 김 씨는 "자살 관련 연구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다는 게 계속 보였다"며 "안타깝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김 씨를 이끄는 원동력은 '누군가의 건강과 삶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했다. 그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실제 임상 경과이자 삶의 기록이라는 점을 떠올릴 때 분석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시금 다잡게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숙제는 연관성을 넘어 원인을 찾는 것이다. 김 씨는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해 질병이 왜 생기는지까지 밝혀보고 싶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새로운 걸 찾기 위해 일단 열심히 해보는 사람"으로 정의한 김 씨는 데이터 속에서 다음 질문을 찾고 있다.



김 씨는 올해 '세계 상위 2% 연구자'로 선정됐다. (사진=신정빈 기자)